

성북구 하천, 10월 수질 분석서 ‘좋음’ 등급 유지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5년 10월 실시한 하천 수질 분석 결과, 정릉천과 성북천이 모두 ‘좋음’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하천 환경이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매달 성북천(삼선교, 보문1교)과 정릉천(시온성교회 앞) 등 총 3개 지점에서 채수를 실시하고 있다. 채수된 시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총대장균군 등 8개 항목에 대해 수질 분석을 진행한다.

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부터 서울시 맞춤형 ‘통합수질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5개 등급 중 하나인 ‘좋음’ 등급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하천 수질의 개선은 단순한 환경 관리 수준을 넘어 탄소 저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물속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미생물과 수생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자연 정화 기능이 강화된다. 이는 하천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생태 기반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북구는 주민환경감시단의 지속적인 순찰 등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하천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깨끗한 하천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깨끗한 물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하천 관리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2025 청계로와 페스티벌’ 개최… 골목상권 활력 기대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11월 1일, 서울의 대표 명산인 청계산 일대에서 골목상권 활력을 높이는 ‘2025 청계로와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청계산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 주변에 수도권 각지에서 수많은 시민이 찾는 가을 등산 명소다. 이번 ‘청계로와 페스티벌’은 각지에서 모인 등산객들이 청계산을 즐기면서 동시에 주변 청계로와 상권에서도 다양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계로와’는 ‘여유로와’, ‘여기로와’를 키워드로 ‘청계산으로 와서 여유를 맘껏 즐기자’는

의미를 담은 서초구의 골목상권 브랜드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서초구와 청계산·청계내곡 상가변영회가 함께 추진하며, 청계산입구역, 서초원터골마당, 청계산 등산로 등 곳곳에서 트레킹, 아트마켓,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청계로와 트레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청계산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다. 사전 신청한 300명의 참가자들이 원터골입구부터 진달래능선을 거쳐 매봉까지

3.7km 구간을 오르는 코스로 운영된다. 582.5m 높이의 매봉 정상은 초보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코스지만, 구는 이중격투기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 윤형빈을 초청해 트레킹을 함께 하고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는 등 재미 요소를 넣어 완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완주자들에게는 매봉 정상석 키링, 청계로와 양말 등 푸짐한 기념품을 나눠주고, 트레킹 포인트 4개소에서 스탬프를 모두 획득하면 청계산 맛집과 카페 등 약 4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구로구, ‘중학교 생활 꿀팁’ 유튜브 생방송으로 알려준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0월 31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입학 전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안내하는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 프로그램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막연한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학 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유험기제, 교과목 구성, 성적 평가 방식 등 실질적인 중학교 생활 전반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방송은 10월 31일 오전 9시 50분부터 40분간 구로구청방송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강의는 고척중학교 남연호 진로교사와 구일중학교 황정희 진로교사가 맡아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방송 시간에 맞춰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방송 종료 후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지 녹화본 시청도 가능하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진로진학팀(02-860-2889)으로 문의하거나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공로 도로공간 재편…보행사각지대 해소·안전 확보

시청역 일대 ‘소공로·세종대로18길’ 도로공간 재편 사업… 내달 착공, 내년 10월 준공

작년 7월, 시청역 보행자 사고 직후 우선조치 이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전강화 대책



〈차로 및 보도 운영계획〉

지난해 7월, 시청역 차량 역주행 보행자 사고 직후 서울시가 해당 지점에 방호울타리·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소공로까지 포함한 구간에 횡단보도 신설, 보도 폭 확장, 녹지대 조성 등 추가적인 개선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소공로·세종대로18길’ 일대 도로공간 재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발생한 시청역 보행자 사고 이후 추진한 단기적 조치보다 더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포함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덕수궁·서울시청·명동·을지로 등을 연결하는 도심 주요 도로인 이 구간은 평소 시민,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

지만 좁은 보도, 횡단보도 부재 등으로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왔다.

서울시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소공로·세종대로18길 일대에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차로 축소 및 보도 폭 확장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방지 ▲녹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이 교차하는 조선호텔 사거리 ‘보행 연결성’이 크게 강화된다. 조선호텔 앞과 세종대로18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2개소가 새롭게 설치되고 기존 횡단보도는 교차로 더 가까운 위치로 옮겨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기존에 사거리에는 북창동·소공동

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1개소 밖에 없어 다른 방향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 차도를 1차로씩 줄여 보행로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 유동인구에 비해 비좁았던 보도 폭을 대폭 넓힌다. 가장 좁은 곳은 1.0m에 불과했던 보도 폭을 최대 4.0m로 확장, 소공리하사가 진출입구 주변으로 줄지어 이동해야 했던 보행자 통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머물러 갈 수 있는 녹색 보행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시는 세종대로18길 보행로에 수국 등 계절 꽃을 심은 소규모 화단을 조성해 삭막했던 도심 도로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공간 재편은 시민 안전을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해 도심 보행·관광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공영장려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최, 공영장려 우수사례 발굴 및 타 지자체 확산 촉진 위해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려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5 공영장려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국장려문화진흥원은 공영장려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의 타 지자체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5년 공영장려 지자체 우수사례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무연고자 봉안시설의 정기 개방 확대와 무연고자 추모의 집 디지털 추모비(기억의 별빛) 설치 등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장려문화진흥원은 공영장려 정책과 사례를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행력 및 협업도 ▲성과 및 영향력 ▲확산 가능성 및 지속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시는 2018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영장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장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가 함께하는 존엄한 마지막’이라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왔다.

서울시 공영장려는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 장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서울시립승화원의 전용 빈소(그리다 빈소)를 활용해 품격 있게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함께

공영 장례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4시간 365일 관련 상담을 제공함은 물론 공무원 대상 공영장려 매뉴얼 제작 및 교육, 현장 애도 지원, 자원봉사자 섭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약자동행 관점’에서 ▲공영장려 부고 게시를 통한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23년) ▲명절 기간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 정기 개방(’24년) ▲무연고 사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시행(’25년) 등 공영장려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407건의 공영장례를 지원해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실적은 3,744건에 달한다.

이장성 기자

서울시재단, AI청년미래위원회 국가대표 청년 AI 자문기구 첫발

10월 28일(화), 서울시재단서 첫 회의… AI 시티 서울 혁신을 이끌 청년 창업가 12인 위촉

서울시의 AI 정책 혁신에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AI청년미래위원회’가 10월 28일(화)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서울시재단(이사장 김만기)은 지난 7월 출범한 ‘AI미래위원회’에 이어, 청년 창업가 및 AI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AI청년미래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의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청년 자문기구로, 서울시 정책에 AI 혁신 역량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에는 국내 AI 생태계를 선도하는 12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금융, 유통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위촉된 12명의 위원은 ▲(AI 3D 콘텐츠) SK AI 인텔리전스 이재철 대표 ▲(산업용 로봇) 나우로보틱스 이종주 대표 ▲(AI SW 최적화) 노타 채명수 대표 ▲(AI 푸드스캐너) 누비랩 김대훈 대표 ▲(AI 채용관리) 두들린 이태규 대표 ▲(AI 반도체)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 ▲(AI 객체인식) 뷰런테크놀로지 김재광 대표 ▲(콘텐츠 유통 AI 플랫폼) 아도바 안준한 대표 ▲(조지능 AI) 아스테로모프 이인형 대표 ▲(웨어러블로봇) 앤젤로로보틱스



조남민 대표 ▲(자율주행) 오토모비스에 이투스 한지형 대표 ▲(금융 AI 플랫폼) 핀다 박홍민 공동대표이다(기법명 가나다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재단의 2026년 사업방향 제언 및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서울 AI 플랫폼 등 재단 주요 AI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방식, SLW 혁신 네트워크 강화 전략, MIT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단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사업 기획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반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서울시 AI 협력 전략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혁신 솔루션을 보유한 민간 부문의 현장 경험이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만기 서울시재단 이사장은 “AI청년미래위원회는 서울시의 AI 혁신을 이끌 청년 스타트업 리더들이 중심이 되는 실행형 자문기구”라며 “정책과 현장에 있는 실질적 협력 체계를 통해 서울시의 AI 행정혁신 및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